

#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터”

광주 찾은 우원식 의장, 민주묘지 참배 후 개헌 약속  
광주시·전국 단체, 25일 국회서 개헌촉구 결의대회  
전국 231개 기관·단체 참여 ‘개헌 국민추진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오월영령에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

우 의장은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최종 원성은 헌법 개정 후 5·18 정신을 헌법에 담고 77조에

있는 계엄의 요건 절차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권만 갖고 있는데 사전 승인권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 기본권 강화 등 개헌으로 내란 극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참배 뒤에는 12·29 제주항공 침사 피해자 유족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망월공원묘지로 이동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묘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배 여사의 묘비를 손으로 닦은 후 기도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많은 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민주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 관련자’로 남아있다”며 “그분들 덕분에 대한

민국이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이 됐는데 목숨 잃은 분들이 유공자가 아닌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켜 꼭 우리 민주열사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자는 약속을 배은심 어머니와 했었다”며 “제가 꼭 할 일이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목숨을 잃고 실종된 많은 분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참배 후 전남대학교로 이동,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초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배하고 있다.

엔뉴스

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원이, 기본소득당 통합특별법에 서명 ‘파장’

‘주 청사 무안에…’ 조항 알고도 참여… 정준호,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4일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특별법에 ‘주 청사를 무안에 둔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다며 “책임지는 야당답게 5급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

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견인하는 해방선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옹 의원은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금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광주전남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목포)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데다, 또 특별시 주 청사는

무안 청사로 한다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정하고, 특별시 새 청사는 7월 1일 취임하는 특별시장에게 맡긴다고 돼 있다.

특별시 청사에 관한 규정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조항이어서 기본소득당 특별법이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경우 논란이 우려된다.

김원이 의원의 이에 대해 “공동발의자 서명은 옹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일”이라며 “옹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기에 상임위 의결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해 (발의자 서명)이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장하며 개별 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김 의원이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당론 발의 법 외에 개별법안 발의는 없다’고 말한 당사자이기에 황당하다”며 “다시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서양진 의원의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 추진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을 선정하고,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남도의 대표적 정착지원 정책으로,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총 1500만 원

이 지원되며, 꽃길·쉼터 조성, 마을 공동행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반 조성 사업비는 기존보다 줄여 1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주민 교류와 공동

체 활동에 쓰이는 융화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송음 고을 석촌마을 이장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wst1@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9일 5·18 민주광장서 출마선언…미래비전 제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사진)이 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서 임기 시작 이후 정책 토론회, 현장방문, 간담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호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광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30대에 광양군수로 재직하며 동광양시와 광양군 통합을 성사시킨 바 있고, 전남도에서 주요 행정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고충 우우센터 유치, 여수 세계박람회(EXPO) 유치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



는 광주형 일자리(현대자동차) 유치를 이끌었고, 초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을 주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에 속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민생과 국가 문화정책을 현장에서 아낀 바 있다.

한편, 이병훈 예비후보는 오는 9일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남·광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광주역 AI·모빌리티 집적단지 등 구정 방향 제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사진)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부대변인은 4일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로 일하고, 문화로 즐기고, 복지로 행복한 도시, 더불어 함께 도약하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고 명명하며 정채된 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 북구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는 골든타임 앞에 있다”며 “지금 북구에게 필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 규정을 따지는 관리자가 아니라 예산을 따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과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 북구를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풀뿌리 현장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 주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강력한 중앙 네트워크의 결합을 강점으로 꼽았다.

문 부대변인은 7대 구정 방향으로 △광주역 중심 AI·모빌리티 집적 단지 조성 △광주역 남북 관통 도로 개설 등 골목 경제 활성화 △산·학·민 협력 대학과 지역이 숨 쉬는 북구 △주민과 예술인 중심 문화 자치 실현 △북구랑 행복하게 통합 복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중심(북구민) 행복 지원금 지급 △학교·학부모·주민 협력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의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관광바이오 중심도시로 구례 대전환”

박인환 전 도의회 의장, 군수 출마 선언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4일 구례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대는 구례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구례를 통합의 변방이 아닌 핵심 거점 도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의 핵심 비전으로 문화관광청 신설 및 구례 유치와 관광·바이오 산업 중심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박 전 의장은 “지리산과 섬진강, 화엄사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문화 자산을 보유한 구례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문화·관광 정책의 중심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관광특구 지정이 실질적 지원 없이 형식에 머물렀던 점을 짚으며, “특별법을 근거로 광역 차원에서 지



정하는 전략 관광특구로 전환해 재정·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 재정과 국비, 특례조항을 연계한 지원 구조 마련 △광주·순천·구례를 잇는 광역 생태·문화관광 벨트 구축 △생태치유·우리밀·약초 산업을 결합한 복합 산업형 특구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 전 의장은 “군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며 “연임을 목표로 한 정치가 아니라, 임기 내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군민과 함께 구례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wst1@